

## 32. 결혼식과 궁전... 클레어 자매의 천국에서의 경험.

2007.01.02 – 클레어 & 에스겔의 천국 체험. 전자책(E-BOOK) ‘신부의 연대기’ 중에서.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저는 6세기에 흐린 날에 성 안뜰에서 아일랜드 기독교인들에게 둘러싸인 제 자신을 발견하였어요. 저는 익숙한 켈트족의 상징을 보고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완전하게 안장을 엮은 적갈색의 말을 데려왔고, 제가 그 말에 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힘차게 말을 돌려서 성벽을 빠져나와 완전히 구불구불한 고대 참나무숲으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길은 양쪽으로 나무들이 뺨뺨하게 자라있었고 양쪽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생각하였어요.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 계속해서 달려야해.’

아주 잠시후에 저는 또 다른 성이 있는 공터에 도착했고, 도개교(들어올릴 수 있는 다리)가 내려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제 말은 다리를 건너 성벽 안쪽으로 망설없이 들어가서 멈춰섰어요. 제가 생명의 흔적을 찾는동안 그 도개교는 미스테리하게도 올라갔고 거대한 문이 제 뒤에서 닫혔어요.

이상하게도 안뜰과 발코니들이 아무도 없어 완전히 텅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말에서 내려 두개의 거대한 문으로 다다르는 길고 긴 돌로만든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하였어요. 망설임 없이 저는 하나의 문을 열었고 세공된 아치형 구조물들을 받치고 있는 우아한 기둥이 있는 고딕양식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제단 위의 높은 곳에는 화려한 장미 모양의 창문이 있었고 이 예배당 전체에 부드럽게 색채를 뿌리고 있었어요.

이 전체 예배당에는 하나의 영혼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동화나라의 비밀 예배당 같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제가 그 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 장미모양의 창문이 색색깔로 터져나왔고 주 예수님이 황금 빛 가운데서 이 예배당으로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축제 분위기의 흰색 결혼식 예복을 입고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교회 앞에 섰어요. 저희의 눈이 마주쳤을때 달콤함의 물결이 저에게 밀려왔고 저는 이것이 저희의 결혼식 날이고,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저는 저의 육체에서 벗어났고 이 전체 장면을 교회의 가장 뒤의 높은 곳에 있는 성가대자리에서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교회 한가운데서 저의 목 뒤에서 허리까지 진주빛 비둘기 날개 장식으로 되어있고, 허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주로 수놓은 반짝이는 흰색

새틴(광택이 곱고 보드라운 견직물)이 대리석 바닥 양쪽에 1미터가 늘어져있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을 입고 서있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장미같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저를 둘러쌌고, 그들은 진주들로 저의 머리를 땀았고, 저의 머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의 베일 아래에서 일하였고, 저의 천국의 배우자를 위해 저를 준비시켰어요.

마침내 그들은 준비를 마쳤고 한 천사가 앞으로 나왔는데 저는 생각 끝에 깨달았어요. ‘당신은 저의 수호천사이군요’ 저는 수호천사를 그렇게 분명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키고 밝은 색깔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위엄함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드러운 백금 빛으로 싸여 부드러움을 발산하였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반짝이는 눈은 시원섭섭함의 기쁨을 보여주었어요. 이날이 그가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 모두가 기다렸던 그 날이요. 그가 저를 저의 천국의 배우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해주는 날이요. 그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날이요.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꿰뚫었어요. ‘내가 나의 천사님을 위해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하지? 항상 내 옆에 신실하게 서있었지만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함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는 제 볼에 입을 맞추고 제 발을 그의 팔에 올려, 기대와 함께 환하게 웃고계신 예수님께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동화같은 결혼식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멈춘것 같아보였고 저는 보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의 평생의 기독교의 삶에서 기다려온 필연적인 기쁨의 목적지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의 삶의 사랑이시고, 매순간의 실패에도 저를 용서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저의 가장 어두운면과 함께 살아야 하셨던 주님 앞에 섰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전의 삶은 뿌연 강물이 깨끗한 자비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내었어요.

주님은 3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반지를 가져오셔서 제 손가락에 끼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반지로 나는 너와 결혼해.”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부드럽게 입맞춤하셨어요. 그런후 저의 오른쪽 손을 잡으셨고 저희는 그 장미모양의 창문을 통해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성당의 바닥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지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저의 불멸하는 영혼의 배우자가 저를 높이 들어올리는 신성한 경이로움에 싸여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문이 열려있는 거대한 방에 도착하였어요. 그곳에는 섬세한 장막처럼 물을 공중으로 뿜어내는 웅장한 분수가 있었고, 이것은 저의 어린시절 시카고의 버킹엄 분수를 방문하였을 때의 경이로움을 연상시켰어요. 내부의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있었고 지붕은 중앙이 개방되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어요.

어디에도 그림자나 어둠은 없었고, 밝고 부드러운 빛뿐이었어요. 내부는 높이가 30미터, 너비가 18미터였으며 7개의 거대한 폭포가 거의 천장에 닿았어요. 그 폭포들의 너비는 7미터정도되고 왼쪽편에 3개, 오른쪽편에 3개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가문비나무, 다양한 양치식물과 꽃과 함께 암석들이 있었어요.

방의 끝에는 15미터 너비의 거대한 폭포가 있었지만 떨어지는 물의 양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이 기쁨으로 날아다니는 날개소리를 들을 수 있을만큼 조용하였어요. 저는 이 모든 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아래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생명의 강의 원류임을 느꼈어요.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저의 오른 팔은 주님의 왼 팔위에 있었고, 저는 길고 진주로 화려하게 장식된 웨딩드레스가 바닥을 쓸고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황금 독수리가 첫번째 폭포위의 바위에서 내려와 저의 왼쪽 팔에 앉았고 그 독수리의 발톱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저의 팔을 부드럽게 움켜쥐었어요. 그 독수리는 빛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강렬하게 집중하였고, 전투에서의 전사처럼 장엄하였지만 저의 팔 위에서 완전하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독수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어요. 예수님은 저를 왼쪽편의 첫번째 폭포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마음으로 짜여진 기댈 수 있는 흰버드나무 2인 안락의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의자의 경이로움을 감상하면서 함께 그곳에 앉아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주빛 물이 춤을 추고 사랑스러운 무지개 빛깔의 공작색깔로 번쩍일때 저는 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장관을 이루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였어요. 일부는 스프레이처럼 뿌려지고 일부는 엄청난 양으로 떨어졌어요. 연보라색, 연한 청록색, 밝은 청자색, 섬세한 장미색, 새틴 리본같은 하얀색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비둘기들이 이 경이의 장소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들의 날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주님은 돌아보시고 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어요.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저는 저의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극복했어.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한 것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셨어요.